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박시양 씨

“소리 빈자리 메우는 ‘고법’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데 힘쓸 것”

소리를 하는 명창 옆에는 늘 북을 치는 고수가 함께한다. 바늘과 실처럼 뿔 수 없는 관계다. 39년 간 북과 한 몸이 돼 북채를 손에서 놓지 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박시양(59)씨다. 최근 그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가 됐다 소식을 알려졌다. 정철호·김청만 씨에 이은 세번째 보유자다. 합평 출신인 그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국악을 접했다. 집안 역시 국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유자 인정은 박 씨의 오랜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고법은 북 치는 방법을 의미해요. 판소리 고법은 소리에 따라 추임새로 흥을 돋우고, 북으로 소리의 빈자리를 메우며 자연스럽게 소리꾼의 소리가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평생 이 일을 해왔지만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일은 아니에요.”

합평 출신... 문화재 김성래 사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서 활동
삶·언어·음악 연관 도서 출간 계획

1981년 전남대 농대에 입학한 그는 국악반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판소리를 처음 접했다. 박 씨는 “어렸을 적 텔레비전에 판소리 명창 안숙선 등이 나와 소리를 하면 채널을 돌렸다”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심청전’, ‘춘향전’ 등을 북에 띠대를 세워가며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왜 우리 소리를 듣지않고, 보지않고 채널을 돌렸을까”.

“판소리를 글로 엮은 가사가 너무 어려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작품을 듣고 이해할만큼만 공부해 해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박 씨는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국악반 동아리를 알게 됐고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땐 주로 선배들과 술을 마시며 노는데 집중했다. 또 시위를 하러 나섰다가 구속됐고 1984년 초 사면·복권되면서 재입학해 다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중 동아리 선배였던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김동현이 후배들이 공연할 때 북을 치며 반주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처음 고수로 무대에 섰다.

“제가 원래 산만한 사람이예요. 집중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 밥먹는 시간, 술먹는 시간을 빼고는 북을 계속 치게 되더라고요. 그때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했다는 착각을 했어요.”(웃음)

그렇게 열심히 또 꾸준히 북을 치니 김동현이 평생 직업으로 삼지 않겠냐고 물었다. 박 씨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어른 몇 분을 제외하고는 국악하면 다들 굶는 상황이었다. 돈벌이는 불가능했다”며 “나는 결혼도 안해서 먹여살릴 식구도 없었고, 거리길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보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1989년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모집에 지원하면서 청암 김성래를 만났다. 그 당시 문화재로 지정된 김성래는 박 씨에게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했고 그렇게 그는 고법을 더 깊이, 평생 공부하게 됐다. 힘든 순간도 있었다. 김성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9년간 슬럼프를 겪은 것이다.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 한계인가 싶었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아’하는 순간이 오더니 모든게 해결됐어

요. 북 치는 일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조금씩 실력이 는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는다면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없겠쎬. 하지만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니 어느 순간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하는 순간이 와요. 소리와 북이 어떻게 묶여야 객석에 완벽하게 전달되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한꺼번에 풀렸습니.”

1995년부터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쳤고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아 고법 전승에 힘썼다. 그러던 중 일을 그만두고 고향 합평으로 발길을 돌렸다. 먹고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레슨을 하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합평의 폐교를 새롭게 꾸며 광주·전남지역의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에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운영은 쉽지 않았다.

“무엇이든 어렸을 적 한번 본 것은 평생 잊지 않아요. 그래서 2014년 4월 문을 열었는데 그해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학생들의 이동이 제한돼 그 한해는 버렸고, 이듬해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하고 14개 학교와 계약을 했는데 메르스가 덮쳤죠. 2016년에는 폐교를 소유하고 있는 합평군 측에서 서울시 사



‘슬기로운 드로잉 생활’

권승찬 개인전, 9월3일까지 예술공간 ‘집’

미디어 작업, 설치 작업을 주로 해온 권승찬 작가가 이번에는 ‘드로잉 작품’만을 모아 개인전을 연다.

오는 9월3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슬기로운 백수생활 권승찬의 드로잉 일상’ 전이다.

드로잉은 모든 작업의 기초가 된다. 권 작가 역시 설치 작업 과정에서 드로잉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지난해 7월부터 매일 한 점씩 드로잉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코로나 19로 외부 활동이 거의 사라진데다, 해외 레지던시 등도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일 1 드로잉’을 시작해 보자 싶었다.

드로잉 작업은 유튜브로도 이어졌다. 유튜브 채널 ‘권승찬의 드로잉 일상’을 개설해 작품을 소개하고 그림 그리는 일상을 담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는 500여점의 작품에서 선별한 160점이 나왔다. 작품에는 작가가 느낀 소소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아들과 함께 통닭을 먹고 야구를 한 일,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기억, 커피 면으로 컵밥을 만들고, 장을 보고 음식을 손질하는 등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작품이 됐다.

재미있는 작업도 이어졌다. 흔하게 사용되는 냅킨에 그림을 그려 냅킨 드로잉으로 업로드하고 통닭집의 포장봉투에도 드로잉을 했다. 작업실에 싸운 도시락 그릇을 탐처럼 쌓은 ‘도시락 탑’, 소



‘도시락 탑’

주병 맥주페트병으로 그린 ‘정물’ 등은 유쾌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연필과 수채화로 그린 그림에는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담기려, 순간 순간을 기억하는 글도 적어 넣었다.

전시기간 중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30분까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권 작가는 16차례 개인전과 서울, 인도네시아, 일본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18년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우환 ‘동풍’ 생존작가 최고가 31억원 낙찰

서울옥션 경매

국내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 경매에서 국내 생존작가 중 처음으로 30억 원을 넘는 금액에 팔렸다.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은 전날 열린 제162회 미술품 경매에서 이우환의 1984년 작품 ‘East winds’ (동풍)가 31억 원에 낙찰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옥션 측은 “한국 생존 작가 중 미술 시장에서 30억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우환이 지난 6월 서울옥션에서 경매에서 기록한 자신의 작품 최고가 22억 원을 두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해당 작품은 1975년 나온 ‘점으로부터(From Point)’였다.

‘East Winds’는 자유로운 윤곽과 역동적인 리듬을 보여주는 이우환의 ‘Winds(바람)’ 시리즈 중에서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이우환의 작품은 지난해부터 미술 시장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김환기를 제치고 미술품 경매 낙찰 총액 정상을 질주 중이다. /연합뉴스



‘East winds’ (동풍)

이우환의 ‘Winds’ 연작은 미술 애호가인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공개적으로 호감을 드러낸 작품으로도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박남준 시인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 조태일문학상

제3회 조태일문학상에 박남준(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 작품집은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이며 상금 2000만원.

죽형 조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는 25일 올해의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박남준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두 120여 편의 시집이 응모됐다. 예심은 이승철, 박순원, 손택수 시인이 맡았으며 본심은 이상국, 강형철, 신덕룡 시인이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박남준 시인은 그동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과 리듬으로 형상화하여, 우리 서정시의 영역을 가꾸고 확산해온 시인”이라며 “소소한 것들에서 큰 울림을 이끌어내고, 또 그것에 비추어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박남준 시인은 1984년 시전문지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천상병시문학상, 아름다운 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시집 ‘중독’, ‘적막’,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 등과 산문집 ‘하늘을

걸어가거나 바다를 날아 오거나’,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등을 펴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우리의 하늘, 우리의 땅’을 주제로 열리는 문학축전 부대행사로 열린다. 문의 010-3007-28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나눔’ 마지막 무대는 예술대학 국악과 출신 청년연주자들 공연으로 채워진다.

이번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펼쳐지며 전남대 예대 국악학과 출신 단체인 프로젝트 크로마가 ‘All that dance Chroma’를 선보인다.

‘All that Dance Chroma’는 원초적 언어수단인 ‘몸짓’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크로마는 왈

츠, 탕고 등 다양한 춤 리듬을 선보인다.

지난 2018년 창단한 크로마는 김상연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전통음악 소재를 활용해 창·제작 콘텐츠 생산, 타 단체와의 협업을 매개로 한 영역 확장을 도모한다.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접수는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하는 공연 나눔’은 예술 전공 관련 청년 기획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2개 공연을 진행했다.

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국제보청기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